



우리나라, 국제표준화기구 임원 수 크게 증가

국제표준화 주도 위한 '의장·간사 협의회' 개최

기술표준원은 국제표준화 활동 발전방안과 국제표준화 전략 등을 논의하기 위해 ISO, IEC, JTC 1 등 국제표준화기구의 의장, 간사, 컨버너 등 임원들의 모임체인 '의장·간사 협의회(회장 전주대 이해성 교수)'를 7월 1일 서울 메리어트호텔에서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에서 소개된 바에 따르면, ISO, IEC 등 국제표준화기구에서 우리나라 임원 수가 2001년 13명, 2005년 45명에서 현재 96명으로 7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ISO, IEC 등 국제표준화기구 기술위원회(TC) 의장 17명, 간사 21명과 컨버너(작업반 의장) 58명이 국제임원으로 활동 중이다.

이는, IT, 디지털전자, 조선 및 물류 분야에서 국제표준을 직접 개발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는 컨버너 수가 급증한데 기인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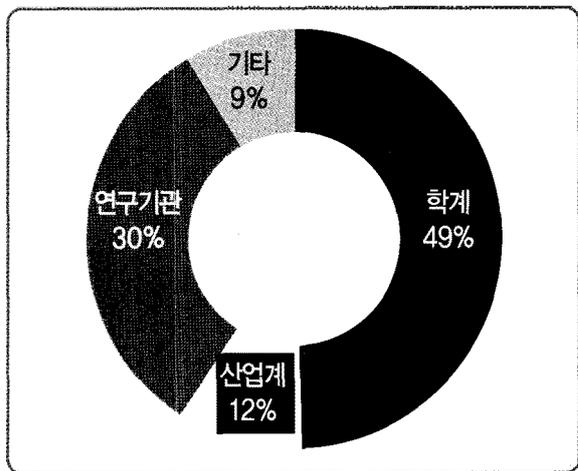
이에 따라 향후에도 우리나라 국제표준화 활동이 본격화되어 국제의장과 간사 수임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우리나라의 국제표준화기구 임원 수는 독일,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국제표준 제안 등 국제표준화 활동의 실질적인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

국제표준화기구 기술위원회 간사 수는 독일이 164명으로 가장 많고 미국이 153명으로 2위, 일본 74명, 중국 29명 등이다. 한국은 18명으로 전체에서 13위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의 국제표준화기구 임원 분포를 보면 학계에서 전체 임원의 약 50%를 차지하고 산업계는 12%에 불과한 실정으

〈그림〉 국내 소속기관별 국제표준화기구 임원 구성비



로 산업계가 주도하고 있는 일본, 유럽, 미국 등과 같은 선진국들과 큰 대조를 보이고 있다.

기술표준원은 이번 협의회를 계기로 우리기술의 효과적인 국제표준화를 위해 국제표준 선점과 성공사례 등을 확대 보급하여 국내 산업계의 참여를 유도하기로 했다.

앞으로도 국제표준화기구 임원들의 경험과 사례를 공유하고 전문가 간 네트워크 강화를 통해 현재 임원수를 선진국 수준으로 증가시키기 위한 '국제표준화기구 임원 확대 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 기술표준원 국제표준협력과(02-509-7399)

〈표〉 우리나라 국제표준화기구 임원 증가 현황

구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현재	
합계	의장	2	3	4	9	11	13	14	18	19	17
	간사	6	7	7	12	13	15	15	16	18	21
	컨버너	5	8	10	18	21	25	34	47	58	58
	합계	13	18	21	39	45	53	63	81	95	96

‘모바일용’ 국산 암호화기술 국제표준으로 채택

스마트폰 활용한 금융거래 등 전자상거래시 사용

기술표준원은 순수 우리기술로 개발된 모바일용 64비트 블록암호화기술 'HIGHT'가 ISO/IEC 국제표준으로 최종 승인(FDIS)되었다고 밝혔다.

블록암호화기술이란 64나 128비트 등 정해진 비트 길이의 정보를 보안성 확보를 위해 암호화시키는 것이다. 이번에 국제표준으로 승인된 HIGHT(High security and light weight)는 암호연산에 필요한 자원을 최소로 사용하여 전력소비가 적도록 개발된 64비트 블록암호화 알고리즘이다.

'HIGHT' 암호화기술은 기존에 인터넷 상에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는 'SEED' 암호화기술과 비교할 때, 휴대기기용 모바일 환경에 더욱 적합하다. 암호화작업에 소요되는 메모리 등 하드웨어 자원과 전력 소비를 최소화하고 안전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고려하는 등 특수설계한 것이다. 이는 2001년 국제표준으로 채택된 국산 128비트 블록암호기술 'SEED'에 연이은 것으로 선진 IT 강국으로서의 면모를 과시한 쾌거이다.

'HIGHT' 암호화기술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고려대, 한국전자통신연구원과 공동으로 개발하여 정보보안 분야 국제표준화기구(ISO/IEC JTC1/SC27)에서 포항공대와 함께 국제표준화 작업을 완료한 것이다.

기술표준원에서는 암호이용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지원을 계속할 계획이다. 우선적으로는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과 공동으로 국산 암호화기술이 스마트폰, USN(Ubiquitous Sensor Network), U-City(Ubiquitous City), U-헬스 등 유비쿼터스 환경에서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을 포함한 산학연을 대상으로 무료로 소스코드를 배포할 계획이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정보보안 분야(ISO/IEC JTC1/SC 27) 국제표준 전체 77종 중에서 '128비트 블록암호 알고리즘' 등 9종을 제안하여 현재 7종이 국제표준으로 채택되었고, 2종이 진행 중에 있다.

☎ 기술표준원 정보통신표준과(02-509-7263)

2012년 태평양지역표준회의(PASC) 여수 개최

아시아태평양지역인정기구협력체(PAC) 상임위원회 의장 수입도

아·태지역 24개국의 국가표준화기관장 협의체인 태평양지역 표준화총회(PASC)가 2012년 여수에서 개최된다.

PASC(Pacific Area Standards Congress)는 미국, 일본, 중국 등 24개국이 회원국으로 있으며 국제표준화기구와의 표준화 관련 협력을 위한 표준화기관 협의체이다.

기술표준원은 2012년 제35차 PASC 총회 국내 유치에 성공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아·태지역 국제표준화 협력기반이 강화되었다고 밝혔다. 2012년 여수에서는 '살아있는 바다, 숨쉬는 연안'이라는 주제로 세계박람회 개최되는데, 기술표준원에서는 이 기간 동안 PASC 총회를 연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에서 중점 추진하는 '저탄소 녹색성장 및 녹색기술 표준화정책' 등을 소개하고 아·태지역의 협력을 주도함으로써 녹색기술 강국으로서 한국의 위상을 한층 높이는 계기로 삼을 계획이다.

또한 기술표준원은 2012년 PASC 총회에 앞서 ISO, IEC 등 국제기구 전문가들이 연사로 참여하는, '기후변화 대응과 녹색표준'을 주제로 워크숍을 개최하여 국내 산업계에 글로벌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 인식을 고취시킬 예정이다.

나아가 한·중·일 국장급이 참여하는 표준화협의체와 동북아 표준협력포럼 등 민·관 표준협력 기반을 토대로 동북아 표준화를 주도해 나갈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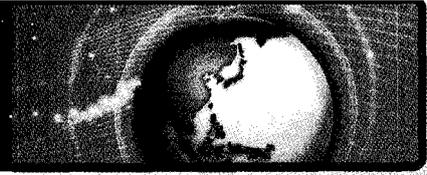
한편 기술표준원은 지난 6월 18일 열린 아·태지역 23개국으로 구성된 아시아태평양지역인정기구협의체(PAC)총회에서 우리나라 오일근 박사(한국인정위원장)가 PAC의 상임위원회인 CMC 의장(Communication and Marketing Committee, 정보화위원회)으로 선출되었다고 밝혔다.

PAC(Pacific Accreditation Corporation)은 미국, 일본, 중국 등 23개국으로 구성된 제품과 경영시스템 인증분야의 상호인정협정 체결 등을 수행하는 국제기구이다.

앞으로, 기술표준원은 아시아태평양 인증제도의 주도권 확보와 공신력 제고를 주도하기 위하여 더 많은 국내 인증전문가를 발굴하고 PAC의 회원국 간 협력 기반을 더욱 공고히 구축할 계획이다.

☎ 기술표준원 국제표준협력과(02-509-7399)

계량측정제도과(02-509-7230)



우리 컴퓨터그래픽기술, 국제표준으로 본격 진입

증강현실과 가상현실 구현을 위한 3차원 컴퓨터그래픽 표준기술 4종

우리나라의 컴퓨터그래픽 기술 4종이 국제표준으로 진입했다. 기술표준원은 지난 6월 28일부터 7월 2일까지 5일 동안 부산에서 개최된 컴퓨터그래픽스분야(ISO/IEC JTC1/SC24) 국제표준화 회의에서 가상환경 표현을 위한 기본구성요소 표준화 등 우리 기술 4종의 국제표준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카메라를 통해 촬영된 실제 영상에 3차원 이미지를 실시간으로 합성하는 증강현실과 영화, 게임, 광고, 애니메이션 제작에 활용되는 가상현실 구현을 위한 컴퓨터그래픽스분야(ISO/IEC JTC1/SC24) 국제표준화회의로서 미국, 영국, 호주 등 6개국 국제표준전문가가 참석했다. 컴퓨터, 모바일기기 등의 웹 상에서 증강현실 및 가상현실을 표현하는 컴퓨터그래픽기술에 대한 17종의 국제표준화 작업을 주요 의제로 선정해 다루었다. 특히 이 분야에

서는 한림대학교 김하진 교수가 국제의장으로 있고 ETRI 정연구 박사가 컨버너를 수임하는 등 우리나라의 국제표준화 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3차원 의료정보(u-Health), 공간정보(GIS)와 이러닝(e-learning) 서비스 등에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는 우리나라 컴퓨터그래픽관련 기술의 상용화와 세계시장 선점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술표준원은 앞으로도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KT, 한국표준협회(KSA) 등과 산·학·연·관이 공동으로 대응하는 민간표준화 협력체를 구성하고 관련 전문가를 대거 참여시켜 우리 컴퓨터그래픽기술이 국제표준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 기술표준원 정보통신표준과(02-509-7262)

3차원 입체영상산업 국제표준화 선도전략 마련

전략 워크숍을 통해 3D산업 주요 5대분야별 표준화전략 수립

기술표준원은 최근 급부상하고 있는 3차원 입체영상산업의 국제표준화 선도전략을 수립하기 위하여 6월 23일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3D 표준화 전략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지난 4월에 3D산업 관련 정부부처가 수립한 '3D산업발전전략'과 연계하여 우리나라의 국제표준 선점 가능성이 높은 주요 5대 표준화 중

점분야별 세부적 표준화과제 발굴과 협력추진체계 등 향후 5년간의 표준화 로드맵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기술표준원은 그동안 3D산업의 국제표준화 대응전략 수립을 위해 산·학·연 표준전문가로 구성된 '3D산업 표준기술연구회'(위원장 충북대 김남교수)를 운영해 왔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산업계와 R&D기관 간의 정보공유와 토론을 통해 5대 중점분야별 표준화 대상과제의 기술적 검토, 과제별 우선순위와 구체적 실행방안 등 표준화 로드맵에 대한 종합적 검토를 거쳐 표준화 대응전략을 마련했다. 특히 이번 표준화전략은 지경부, 방통위, 문화부 등 3D 표준화 관련부처가 표준화 기획단계부터 상호 역할분담을 통한 협력체계를 기반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 기술표준원 디지털전자표준과(02-509-7296)

〈표〉 5대 중점분야 주요 표준화 대상

5대 중점분야	주요 표준화 대상
3D 비디오	3D 영상 부호화, 저작도구, 영상포맷, 화질평가 및 시뮬레이션
3D 디스플레이	3D 디스플레이 화질평가, 광학부품, 신호처리부품의 신뢰성
3D 콘텐츠응용	3D 인터랙션, 그래픽 콘텐츠 연동기반 영상 화질/상능 측정
3D 영화	3D 영화 촬영/상영의 구현환경, 가이드라인, 성능평가
3D 휴먼팩터	휴먼팩터 평가방법, 요인별 인체 안전성 기준

가스용량 10mL이상인 가스라이터 판매 금지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동물이나 장난감 형태도 제작 금지

기술표준원은 가스탱크용량이 10mL 이상인 가스라이터를 제조하거나 수입하지 못하도록 공산품안전기준을 개정하여 입안 예고하였다. 기존에 의하면 가스의 최대용량은 가스탱크용적(10mL)의 85% 이하로 채워야 한다.

특히 지난해 말부터 수입 유통된 40ml 이상급 대형 가스라이터는 가스용량이 많아 폭발시 위험성이 크고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시중 유통을 금지하여 왔다.

개정안의 가스탱크용량은 통상 시중에 유통되는 가스라이터의 가스탱크 용량(4~10mL)을 고려하여 10mL 이하만 판매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였다.

또한, 어린이들에게 관심을 끌 수 있는 사람·동물·권총·인형·자동차·전화기·식품 등의 장난감 모양이나 부착물이 붙어 있는 가스라이터도 판매할 수 없도록 하였다. 가스라이터를 안전인종받지 않고 제조·판매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한편 기술표준원은 금년 안에 가스라이터로 인한 어린이들의 화재·화상사고를 줄이기 위해 점화레버를 단단하게 만들거나, 두 가지 이상의 조직을 해야만 켤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일반 가스라이터와 대형 가스라이터 비교

이를 위해 가스라이터의 종류를 분석하여 어린이의 힘으로 켤 수 없는 기준치를 결정하여 안전기준에 반영할 예정이다. 참고로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08~2009년 동안 가스라이터 안전사고를 입은 사람은 중상 4명, 경상 8명에 이른다.

☎ 기술표준원 생활제품안전과(02-509-7248)

〈그림〉 판매 금지되는 가스라이터 모양의 예





우리 표준체계 보급, 新 수출전략 본격 가동

중점 신흥시장국가에 표준협력 프로그램 추진



▲ 기술표준원은 '국제 표준인프라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6월 7일부터 18일까지 약 2주간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 CIS 지역 8개국 16명의 표준과 품질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연수를 실시했다.

기술표준원은 수출전략지역에 우리 표준체계를 보급하기 위한 '국제 표준인프라 협력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미 기술표준원은 2002년부터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협력하여 일부 개발도상국가를 대상으로 표준화와 적합성평가능력 향상을 위한 단기 연수프로그램을 운영해 아세안 등 18개국 111명의 교육을 수료한 바 있다. 올해부터는 단기 연수프로그램에 국한하지 않고 기술표준사업 예산을 투입하여 다각적이고 체계적인 표준협력 프로그램을 추진할 계획이다.

최근 EU, 미국 등 선진국보다는 우리의 수출전략지역인 아세안, 중앙아시아, 중남미, 아프리카 등 신흥시장국가의 기술규제가 더욱 강화되고 있고, 이들 국가의 표준체계가 미흡하여 우리기업들의 진출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국내 모 전자회사는 일부 남미국가의 인증제도가 없어 아시아산 저가 불량 제품으로 인해 경쟁력이 저하되어, 인증체계 구축지원을 요청하기도 했다. 또 다른 모 에너지관련 기업은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온

실가스감축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으나, 측정표준 등 표준체계 미비로 사업추진에 차질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기술표준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의 체계화된 표준과 적합성평가 분야의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여, 해당 국가의 국가표준과 강제인증체계 정립, 시험평가능력 향상, 무역성 기술장벽(TBT)에 대한 운영노하우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40여개 중점 신흥시장국가의 공무원, 전문가들을 국내에 초청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물론, 우리 전문가를 현지에 장·단기로 파견하여 우리나라의 표준체계를 적극적으로 전수한다는 전략이다.

이번 사업의 첫 단계로 먼저 6월 7일부터 18일까지 약 2주간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 CIS 지역 8개국 16명의 표준과 품질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연수를 실시했다. 참가국은 지역별로 베트남, 캄보디아, 나이지리아, 케냐, 페루, 파라과이, 에콰도르, 아제르바이잔이다.

이러한 표준체계 보급을 통해 기술규제의 사전대응, 중복시험인증 방지, 우수기술력 인정 등으로 우리기업들의 수출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시스템을 바탕으로 관련 시험·연구장비 등의 제품과 전문인력을 패키지로 수출하여, 새로운 기술 서비스 영역을 개척할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윤종구 기술표준원 국제표준협력과장은 "적극적인 표준교육과 교류협력을 통해 표준체계를 전수해주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활문화를 이해시키는 문화적 외교활동으로도 접근하여 궁극적으로 국가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기술표준원 국제표준협력과(02-509-7400)

‘표준개발협력기관 협의회’ 창립총회 개최

6월15일 팔레스호텔에서, 국가표준 민간개발 본격 추진

지난 6월 15일 서울 팔레스호텔에서 ‘표준개발협력기관 협의회’ 창립총회가 개최됐다. 이번 협의회는 표준개발협력기관 간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산업계 등 민간에 의한 국가표준 개발을 본격 추진해 나가기 위한 것이다. ‘표준개발협력기관’은 한국표준협회 등 37개 기관이 참여하여 정부가 주도하던 국가표준의 개발관리 업무를 표준화에 대한 전문성을 갖고 있는 민간 전문기관에 이양하고, 정부는 국가표준정책을 전담하여, 기술발전 등에 따른 다양한 표준화 수요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협의체이다.

앞으로 37개 표준개발협력기관의 장이 참여하여 표준개발협력기관 간의 정보교류와 표준화경험 공유를 높여 기관 간 역량차이를 해소하고 국가표준의 개발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표준개발협력기관 발전방안을 수렴할 예정이다. 초대 협의회장에는 최갑홍 한국표준협회장, 협의회 운영위원장에는 김경남 연세대 교수가 선임되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실질적인 협의회의 운영방향 설정과 조

정, 대 정부 표준화정책 제언과 반영 등에 대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또한 협의회 업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계, 전기·전자, 화학, 생활의 4개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였다. 기술표준원은 기술기준을 관리하는 민간전문기관과 각 부처의 산하기관, 시험연구소 등을 표준개발협력기관으로 적극 발굴하여 기술기준과 국가표준의 통일화를 촉진하고 국가표준을 정부와 민간부문에 적극적으로 이양하도록 할 예정이다.

즉 2010년 6월 현재 37개 표준개발협력기관이 25%를 담당하고 있는 국가표준(KS) 관리업무를 2012년 8월까지 전체 국가표준의 80%를 담당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에 ‘표준개발협력기관 협의회’가 출범함에 따라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효율적으로 수렴하여 정부정책에 반영하는 청구역할을 수행하고, 민간의 표준화역량을 강화해 나가는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 기술표준원 표준기획과(02-509-7259)

2011년부터 개정된 세탁기 안전기준 시행

기타 전기용품도 올해 안으로 안전기준 개정 추진

기술표준원은 드럼세탁기 어린이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구조변경 등을 포함하는 세탁기 안전기준 개정(안)을 6월 30일 확정·고시하여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탁기 안전기준은 기술표준원이 국내 세탁기제조사와 소비자단체 등과 함께 국내외 안전기준 검토를 통해 개정(안)을 마련한 후, 각계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고시한 것이다. 내년부터는 고시된 안전기준을 만족하는 제품만 제조·판매가 가능하다. 내용을 살펴보면 개구부(투입구가 직경 200mm를 초과하거나 세탁조가 60L를 넘는 드럼세탁기의 경우, 개폐문의 중앙부에서 93N(9.5kgf) 이하의 힘으로 밀어서 열리는 구조적 요구사항이 추가되었다. 사용자가 세탁용량에 따른 물 사용량을 알 수 있게 하여 에너지 절약에 유도하

기 위험이다. 세탁기의 주요 수위별 세탁용량(kg)과 수량(L)의 표시사항도 규정하였다.

기술표준원에서는 올해 안으로 세탁기 이외의 전기용품에 대해서도 우리나라에서 도입·적용중인 IEC 국제기준 뿐만 아니라 미국 UL 등의 안전기준을 검토하여 사용 환경과 문화적 차이를 고려한 사고예방 차원의 안전기준으로 강화시켜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감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전기용품의 누설전류 기준, 화재 발생 위험이 있는 부품의 안전보호등급과 기타 잠재적인 위험요소 등을 검토하고 관련분야 전문가, 업계와 소비자 의견을 수렴해 안전기준에 반영할 예정이다.

☎ 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02-509-7242)

‘건물 열 성능과 에너지 이용’ 국제표준화 회의

우리 친환경·초단열재 기술로 그린빌딩 시대 개막

기술표준원은 그린빌딩 시대를 위한 제22차 ISO/TC163(건물 열 성능과 에너지 이용) 국제표준화회의를 지난 6월 7일부터 11일 까지 5일간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단열재, 창호 등 건물의 열성능 개선에 주요한 구성요소의 성능뿐만 아니라 냉·난방, 환기 등 건물 전체의 에너지 효율 개선에 대해 논의하는 국제표준화기구 기술위원회로 건물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 제로에너지하우스 구현 등 그린빌딩을 위해 필수적인 단열재의 성능과 건물의 에너지효율을 측정하는 표준을 논의하기 위한 것이다.

전 세계 건물에너지소비량은 에너지수요의 40% 이상을 차지하며, 건물에서 배출하는 온실가스도 전체의 30%에 이르고, 배출량은 20년 후 두 배에 이를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세계 각국에서는 건물의 온실가스 감축을 지원하는 정책과 국제표준 개발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또한 우리기업들이 개발한 고효율 초단열재인



진공단열재(VIP, Vacuum Insulation Panel)와 친환경 셀룰로오스 단열재에 대한 국제표준(안) 제안발표도 있어, 우리기술로 차세대 단열재 국제표준을 선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 기술표준원 화학세라믹 표준과(02-503-7973)

‘스마트 그리드 표준화포럼’ 출범

제주 실증 컨소시엄 표준개발 본격 지원

스마트 그리드 제주 실증 컨소시엄의 표준개발을 지원하고 민간 표준화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스마트 그리드 표준화포럼’이 본격 출범된다. 기술표준원은 지난 6월 3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스마트 그리드 표준화포럼’ 출범식을 갖고 ‘스마트 그리드 표준화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포럼 출범식은 우리나라 스마트 그리드의 성공적 구축과 시스템 간 상호운용성 확보를 위한 스마트 그리드 표준화 종합추진전략을 수립하고 민간차원의 표준개발을 중점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

‘스마트 그리드 표준화포럼’은 우리나라가 중점 추진 중인 ‘지능형전력망’, ‘지능형소버저’, ‘지능형운송’, ‘지능형신재생’, ‘지능형서비스’의 스마트 그리드 5대 주요영역에 대한 표준개발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총 6개 분야 표준화 부과위원회를 구성한다.

각 분과위원회는 실증 컨소시엄 업체와 R&D 전문기관 등에서 300여 명의 전문가가 참여하여 작업반을 구성하고 표준개발을 하게 된다. 금년중에는 표준개발이 시급한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와 스마트 계량기 분야 표준을 개발하고, 아울러 제주 실증단지 구축에 필요한 표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



제주 실증단지 구축사업과 밀접히 연계한 포럼 활동을 통해 2013년까지 스마트 그리드에 필요한 100여 종의 표준을 개발하고, 향후 한·중·일의 동북아 협력을 기반으로 미국·독일 등 스마트 그리드 선도국가들과의 표준화 협력활동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기술표준원은 이번 민간표준화를 위한 포럼이 출범함으로써 기존 운영 중인 상호운용성연구회와 스마트 그리드 사업단의 실증센터 등과 통합 표준화 협력체계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기술표준원 디지털전자표준과(02-509-7294)

임상검사실과 체외진단 의료기기 국제표준화 총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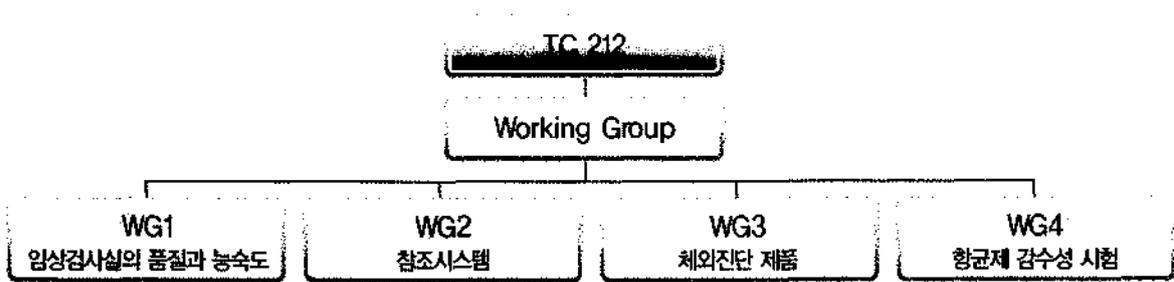
임상검사법 표준, 정도관리와 현장 진단용 의료기기 표준화

국제표준화기구 임상검사실과 체외진단시스템(TC212) 국제표준화 총회가 지난 6월 2일~4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개최됐다. 이번 총회에서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미국, 독일, 일본 등 15개국 100여 명의 국제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임상검사실과 체외진단시스템에 관한 국제표준화를 논의했다. 특히 체외진단시스템의 기술과 제품의 표준화와 더불어 병원들의 임상검사실 정도와 각종 임상검사법에 관한 표준화 가이드라인, 혈당계와 같은 현장검사용 진단 의료기기의 적합성과 성능 평가방법 등에 관한 국제표준화 작업이 중점 추진되었다. 임상검사실 표준화는 의료 질 향상과 보건의료사업의 글로벌화를 위한 시스템인증의 주요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어 국내 의료사업의 세계시장 진입을 위해서도 대응이 절실히 필요한 분야이

다. 현재 전 세계 체외진단시스템의 시장 규모는 약 450억 달러로 예상되며 2004년부터 2009년까지 매년 11%이상 성장을 보이고 있다. 혈당계처럼 거대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의료기기의 표준화활동뿐만 아니라, 최근 바이오칩과 같은 새로운 융합기술이 접목된 신기술 체외진단시스템의 국제표준화는 진단의료기기의 세계시장 진입을 위하여 국내 관련업계의 적극적인 표준화대응이 필요한 분야이다. 기술표준원은 향후 미래 신성장산업의 기반이 되는 진단의료 분야의 임상검사실 표준화와 체외진단시스템에 대한 국가표준화 활동을 강화하여 관련업계의 세계시장 진출에 기여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기술표준원 바이오환경표준과(02-509-7266~9)

(그림) 국제표준화기구 임상검사실과 체외진단시스템(TC212) 조직구성도



기기유화시험원, 김윤광 원장 이임식

2003년부터 6년 5개월간 근무 ... 5월 31일 이임식 가져



한국기기유화시험연구원 김윤광 원장이 지난 5월 31일 이임식을 가졌다. 김윤광 전 원장은 이임식을 통해 "지난 2003년부터 6년 5개월 동안 많은 사랑을 받아 행복했다"고 소회를 밝히며 "외부적으로는 개방성의 확대와 공공에 대한 책임을, 내부적으로는 기술융합의 중요성이 증가하는

시대에 더욱 상호소통과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한국기기유화시험연구원의 발전을 기원했다.



국가표준(KS) 용어도 국어 문법에 맞게

기술표준원-국립국어원, 국가표준 용어 정비와 보급을 위한 협약 체결

기술표준원과 문화체육관광부 국립국어원은 국가표준(KS)을 국어맞춤법과 외래어표기법 등 어문 규범에 맞게 정비하기로 하고 2010년 6월 23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를 통해 두 기관은 국가표준(KS)에 사용되는 전문용어와 외래어 등을 국어맞춤법과 외래어표기법에 맞게 하고 문장배열, 띄어쓰기, 문장부호 및 기호 등도 국어 문법에 맞게 정비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기술표준원에서는 KS 제정·개정 시에 KS 표준안을 국립국어원에 사전 검토 요청하고, 국립국어원의 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어문 규범에 맞는 표준안을 고시하기로 하였다.

또한 KS 산업 분야별 용어표준전문위원회에 국립국어원의 전문가가 참여하여 KS 표준문서에 사용되는 전문용어를 표준어로 정비해 나가기로 하였다.

국가표준인 KS는 국민들이 인터넷 등으로 많이 이용하고 있으며, 특히 전문용어는 교과서에도 인용되는 등 파급효과가 크므로 전문용어의 표준화가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

현재 국가표준 전문용어에는 스테인레스(스테인리스), 락카름(라카름) 등 어문 규범에 맞지 않는 표현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양 기관은 산업 분야별 표준용어 자료를 공유하기로 하였으

경제부 기술표준원 | 문화체육관광부 국립국어원

전문용어 표준화를 위한 업무협약

일자 : 2010. 6. 23. (수)



▲ 허경 기술표준원 원장리 권재열 문화체육관광부 국립국어원장이 지난 6월 23일 국가표준을 어문 규범에 맞게 정비하기로 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며, 국립국어원에서 2012년에 발간할 개방형 한국어 지식대사전에 KS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문용어를 수록하여 편찬, 보급하기로 하였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기술표준원에서는 KS 표준문서는 물론 모든 공문서에서도 어문 규범에 맞는 국어를 사용하 나갈 예정이다.

화학시험연구, 독일 SLG 초청 기술세미나 개최

국내 50여 업체 100여 명 참석해 기술력 향상에 관심



KTR

한국화학시험연구원은 지난 6월 10일 서울 본원 2층 대강의실에서 독일 SLG의 전문가를 초빙해 에너지라벨링 및 EuPEnergy-using

Product)를 소개하고 최근 규제 동향을 안내하는 무료 기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국내 기업들의 기술력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독일의 시험인증기관인 SLG를 초청해 개최한 것이다. 이날 세미나는 삼성전자와 국내 전기전자 중소기업 등 50여 개 업체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하는 등 성황리에 개최됐다.

독일 SLG는 에너지효율 및 전기전자제품, 의료기기 분야에서 유럽 내 권위를 자랑하는 독일의 대표적인 CE 시험인증기관이다.

한국화학시험연구원은 CE, 그리고 독일 GS마크 인증분야에서 협력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SLG와 추후 협력확대를 논의하는 등 해외 사업 강화를 위한 활동도 아울러 진행하고 있다.